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증이론을 토대로*

김 은 하 김 경 희[†] 박 한 솔 정 보 현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세계관입증이론(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WVT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킨다. 먼저, 연구 1에서는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2에서는 점화를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위해,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비성차별 집단과 성차별 집단으로 무선 할당시키고,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성차별집단에 비해 성차별 집단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아존중감간의 정적 상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경험, 자아존중감, 세계관입증이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NRF-2017S1A5A8020095).

† 교신저자 : 김경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울곡관 526-1
Tel : 010-9233-9773 / E-mail : leki88@naver.com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양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성차별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이를 반영하듯, 기업 인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81%의 참여자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고, 74.2%가 남성이라는 점이 채용 시 유리하다고 응답하였다(경북일보, 2018).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44%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이 중 다시 취업 한 여성은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경력 단절 사유는 결혼 58.5%, 임신·출산 28.4%, 양육 7.2%로 나타나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에 의한 원인이 94.1%이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령,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개한 ‘2015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의 40분에 비해 5배 가까이 길었고, 5년 전과 비교해도 맞벌이 부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5년 동안 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통계청, 2015).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cher & Holz, 2010; Lewis & Neville, 2015). 가령,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높이고, 심각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등, 2017; Kira et al., 2017). 또한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은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낮은 생산력, 낮은 직무 만족, 낮은 경력 몰입 그리고 높은 이직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김금미, 2010; Burke & Mikkelsen, 2005).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Panchanadeswaran & Dawson, 2011; Warden et al., 2004).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Crocker et al., 1994). 성차별경험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사회관계 측정론(sociometer theory)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예. 차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Leary & Baumeister, 2000).

이와 같이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차별경험이 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관인증이론(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에 따르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성차별을 경험한 개인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데(Major et al., 2007), 여기서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세계관은 개인이 스트레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1983). 여러 유형의 세계관 중, WVT가 주목한 세계관은 세상이 정당하다고 지각하는 믿음,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belief in just world; BJW). BJW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인지적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령, BJW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BJW가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선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또한, BJW는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스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Lambert, Burroughs, & Nguyen, 1999), 특히 몇몇 연구에 따르면, BJW는 외상적 사건(예. 도래 괴롭힘 경험, 직장 괴롭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혹은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ia & Dalbert, 2008; Ocel & Aydm, 2012). 또한 BJW는 높은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는데, 즉, BJW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urnham, 2003). 예를 들어, Jost와 Hunyady (2002)는 BJW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내적(예. 능력, 성격)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BJW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즉,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WVT에서는 BJW가 높을수록, 오히려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는데(Major et al., 2007),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만약 특정 경험(예. 성차별경험)이 자신의 세계관('세상은 정당하다', '나는 부

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Townsend et al., 2010). 이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혼란, 위협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Finkel et al.(2006) 그리고 Mendes et al.(2007)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BJW가 높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을 외적(예. 가해자의 편견이나 특권의식)으로 귀인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그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BJW가 낮으면 성차별의 원인을 외적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내집단(예. 여성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Major, Quinton, & McCoy, 2002).

실제로 여러 설문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해 WVT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어, Majo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BJW와 동일한 개념인 시스템(사회)이 정당하다는 믿음(system justifying beliefs: SJB)(예. 누구든 노력한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이 강할수록, 차별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Townsend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SJB가 강한 개인이 차별경험 후 높은 심장혈관 반응(cardiovascular response, 위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Lucas, Lumley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BJW가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했을 때, 더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VT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예. 여성, 유색인종, 사회

경제적 하위층)의 경우에는 높은 BJW가 오히려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Cozzarelli, Wilkinson과 Tagl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BJW가 높을수록 자신의 불행이나 낮은 성취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여성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의 탓으로 생각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after & Olson, 1993; McCoy & Major, 2007),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st & Hyunday,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는 BJW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개인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WVT의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WVT는 학문적 그리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함의점을 지니는데, 가령,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주목한 미시적 차원의 인지적 요인(예, 자신, 가족, 또래,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벗어나 BJW라는 거시적 차원의 인지적 요인, 즉 세계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BJW의 양가적인 측면(예,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vs. 차별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화시킴)을 밝힘으로써 BJW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의의점을 찾을 수 있다(Major et al., 2007). 이와 더불어, 임상적으로는 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밝힘으로 차별을 경험한 피해자에 대한 개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BJW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향상시키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지만,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높은 BJW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WVT에 대한 여러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었고 WVT가 여러 면에서 함의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WVT를 토대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WVT 관련 연구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WVT가 한국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혹은 다르게 적용될 것인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한국과 같은 집단문화권에서도 BJW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Lucas, Kamble et al., 2016)를 고려할 때, 한국여성에게도 BJW의 조절 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과 Park(2018)의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자존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BJW가 높을 때에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BJW가 높은 사람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에 취약하지만 BJW가 낮으면 성차별경험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아 우울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WVT가 한국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WVT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어 그 결과를 취업 여성이 아닌 주부나 여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성차별경험을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BJW 수준에 따라 성차별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즉, BJW 수준이 낮을수록 성차별경험을 많이 지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Cozzarelli, 2001), 성차별경험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더불어 다른 방법(예. 성차별적 상황을 점화시킴)으로도 측정되어야 한다(Lucas, Kamble et al., 2016).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에서, WVT가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즉, BJW가 성차별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비성차별('한국 사회의 성차별은 거의 근절되었다')과 성차별('한국 사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이라는 점화과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BJW가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WVT가 한국 여성의 성차별경험에 적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BJW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의뢰한 설문 업체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의 설문 응답을 얻어 연구자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모든 설문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분 정도였으며, 참여자들은 소정의 기프트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1.53세($SD=11.12$)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73명(36.5%), 기혼 119명(59.5%), 이혼 혹은 별거 7명(3.5%), 사별 1명(5%)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초·중학교 졸업 1명(5%), 고등학교 졸업 41명(20.5%), 대학교 졸업 144명(72.0%), 대학원 졸업 이상 14명(7.0%)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62명(31.0%), 영업직 3명(1.5%), 생산/노무직 5명(2.5%), 서비스직 11명(5.5%), 전문직 23명(11.5%), 자영업 11명(5.5%), 학생 14명(7.0%), 주부 58명(29.0%), 무직 13명(6.5%)이었다.

측정도구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등(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내 삶의 70%이상의 시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성차별적 농담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여자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Klonff 등(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당하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대체로 그럴만하다고 믿는다”가 있다. 김은하와 김혜림(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있다. 이훈진(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BJW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BJW를, 2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항(성차별경험 XBJW)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예측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1. 성차별경험	-	-.35**	-.19**
2. BJW		-	.43**
3. 자아존중감			-
<i>M</i>	2.23	3.57	3.34
<i>SD</i>	.89	.93	.64
첨도	1.28	.19	-.02
왜도	1.07	-.42	-.18

** $p < .01$

인들의 첨도는 $-.020 \sim 1.280$, 왜도는 $-.420 \sim 1.071$ 로 나타나 West, Finch,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첨도 < 7 , 왜도 < 2)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은 BJW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BJW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BJW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W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BJW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BJW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JW의 평균값과 $\pm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저, 중, 고)으로 구분한 후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BJW가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

표 2. BJW의 조절효과 분석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비표준화계수		β	<i>t</i>	ΔR^2	<i>F</i>
	<i>b</i>	SE				
1단계						
성차별경험	-.031	.050	-.043	-.632		
BJW	.286	.047	.415	6.054***	.187***	.22.609***
2단계						
성차별경험	-.051	.050	-.071	-1.025		
BJW	.295	.047	.429	6.296***		
성차별경험XBJW	-.099	.043	-.149	-2.278*	.021*	17.124*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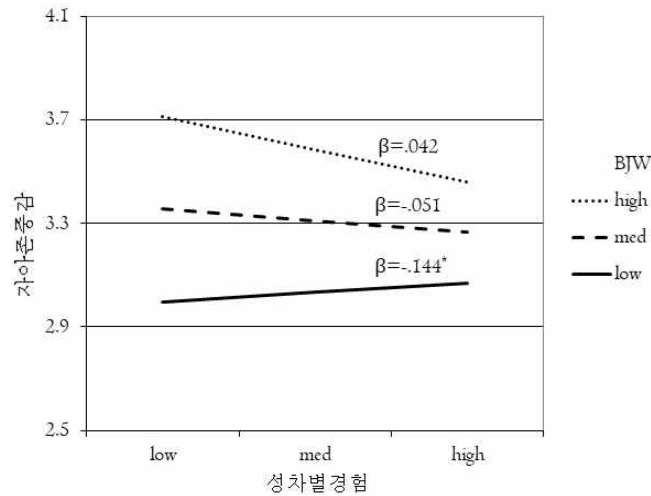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 별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표 3. BJW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i>b</i>	SE	<i>t</i>	LLCI(<i>b</i>)	ULCI(<i>b</i>)
BJW	Low	.042	.061	0.679	-.074	.157
	Med	-.051	.045	-1.139	-.150	.047
	High	-.144	.061	-2.345*	-.281	-.006

**p* < .05

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BJW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JW가 낮은 집단의 경우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BJW가 낮을 때는 성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점화 과제를 실시하고 BJW가 집단(비성차별집단, 성차별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연구참여자

만 20세 이상 160명의 여성들이 두 집단(비

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중 한 집단에 우선 할당되어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다. 비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74명(46.3%), 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86명(35.8%)명이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집단에 맞는 온라인 링크로 들어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은 3,000원 가량의 커피 쿠폰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1.71세($SD=8.89$)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115명(71.9%), 기혼 44명(27.5%), 이혼 혹은 별거 1명(.6%)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4명(15.6%), 대학교 졸업 117명(73.1%), 대학원 졸업 이상 18명(11.3%), 기타 1명(.6%)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45명(28.1%), 영업직 1명(.6%), 생산/노무직 2명(1.3%), 서비스직 4명(2.5%), 전문직 50명(31.3%), 자영업 1명(.6%), 학생 42명(26.3%), 주부 10명(6.3%), 무직 4명(2.5%), 기타 1명(.6%)이었다.

연구 절차

먼저,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SNS(예. 상담복지센터 사이트, 취업포사이트, 가족여성개발원 사이트,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이트, 페이스북) 그리고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소개문을 공지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두 집단(비성차별, 성차별) 중 한 집단에 우선 할당하였고, 해당 집단에 맞는 온라인 설문지 링크에 들어가 점화 과제 및 설문에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연구 안내문, 연구 동의서, 사전 측정 설문, 점화 지문, 사후 측정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사전 측정 설문에 응답하였고 점화 지문을 읽은 후 사후 측정 설문에 응답하였다. 사전 측정 설문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한 문항, 사후 측정 질문은 조작점검을 위한 질문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점화 지문의 내용 중 사실인 내용(성차별집단-“여성은 남성과 같은 경력을 쌓아도 남성이 받는 임금의 62.8%를 받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서 밀린다”)과 연구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내용(비성차별집단-“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90%가 남녀 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차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에 대해 안내하였다.

측정도구

점화 과제

연구 2에서는 Major et al(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문과 점화 지문을 토대로 비성차별 집단을 위한 점화 지문과 성차별집단을 위한 점화 지문을 개발하였다. 집단 별 점화 지문을 살펴보면, 먼저, 비성차별 집단에서는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거의 근절되었다는 주장과 이 주장을 지지하는 예시가 포함된 에세이를 읽게 한 반면에 성차별 집단에서는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예시가 포함된 에세이를 읽게 하였다. 본 연구의 전 실험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실험에 앞서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지시문과 점화

지문 내용의 이해도에 대해 수정하였다.

사전 질문지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점화 과제를 실시한 전 두 집단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ucas, Lumley et al(2016)이 사용한 한 문항(‘최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 4=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작점검을 위한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Luhtanen과 Crocker(1992)가 개발하고 Major 등(2007)이 성별 집단으로 수정하고 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공적관심척도(Public Regar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는데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0=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한다(역문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Major 등(2007)의 연구에서 .5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59로 나타났다.

사후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60명으로, 비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74명, 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86명이었다. 두 집단의 점화 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연령, 학력, 소득 수준(단위: 천원),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표 4. 사전 동질성 검증

	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F(1, 158)
	M(SD)	M(SD)	
연령	30.83(8.84)	32.46(8.92)	1.334
학력	3.00(.52)	2.95(.55)	.297
소득 수준	4,665.04(290.03)	4,157.03(226.43)	1.554
스트레스 수준	3.47(.61)	3.38(.58)	1.91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절 효과**

조작 점검

조작 점검을 위해 두 집단의 조작점검 문항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조작점검 문항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차별 집단이 비성차별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성차별 집단이 비성차별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BJW가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더미변수(1=비성차별집단, 2=성차별집단)로 처리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집단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JW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W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집단과 BJW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JW가

표 5. 조작 점검

	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F(1, 152)
	M(SD)	M(SD)	
조작점검 문항 점수	3.34(.80)	3.82(.86)	12.545**

**p < .01

표 6. BJW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비표준화계수		β	t	R^2	ΔR^2
	b	SE				
1단계						
집단	-1.19	.83	-.11	-1.43		
BJW	2.01	.42	.36	4.79***	.12	
2단계						
집단	-.93	.82	-.08	-1.13		
BJW	1.99	.41	.36	4.88***		
집단XBJW	-1.77	.59	-.22	-3.02*	.16	.05

*p < .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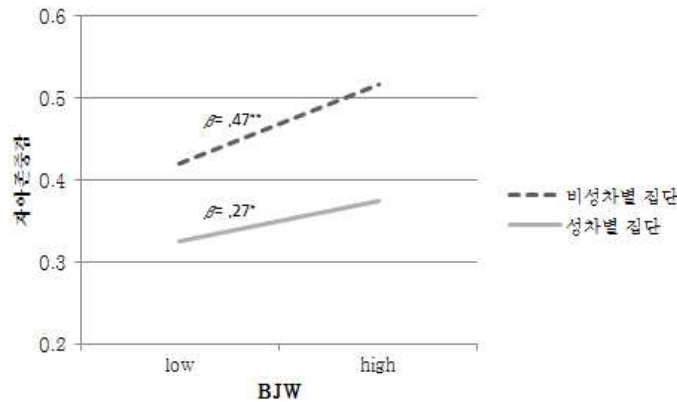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BJW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과 BJW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JW의 평균±1SD에 따라 자료를 두 집단(저, 고)으로 구분 한 후 BJW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비성차별 집단과 성차별 집단 모두에서 BJW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 즉 BJW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적 상관은 성차별 집단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점화되면 BJW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성차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Banks, Kohn-Wood, & Spencer, 2006; 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성차별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 내적 요인을 밝히는 것은 상당 현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주목하였고, 특히 세계관 입증이론(WVT)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WVT는 개인의 세계관에 따라 차별경험이 자존감이나 다른 심리적 적응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가정하면서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차별경험의 부정적 결과가 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세부 연구(연구 1=설문지 연구, 연구 2=점화 연구)를 통해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을 경험했을 때 더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BJW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WVT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JW가 평균이거나 낮을 때는,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BJW가 높을 때는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비성차별집단과 성차별집단 모두에서 BJW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차별집단에서 이러한 BJW의 긍정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2의 결과 또한 WVT를 지지하는 것으로, BJW가 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BJW가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먼저 BJW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Major, Kaiser, & McCoy, 2003; Major et al., 2002)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둘째, BJW가 높은 사람은 성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과 경험간에 불일치를 경험하기 때문인데, WVT에서, 이러한 불일치는 취약성, 불확실성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Kaiser, Vick, & Major, 2004; Major et al., 2007; McCoy et al., 201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1에서, BJW가 낮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Major와 동료들(2002, 2003,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자신의 믿음(예. '세상은 정당하지 않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과 성차별경험이 일치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 그 경험이 부정적 일지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연구 2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성차별 집단에서 BJW와 자아존중감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비성차별과 성차별 집단 모두에서 BJW와 자아존중감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기적인 기분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점화로 인해 순간적으로 변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관련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성차별 점화 과정을 실시하여 실제 BJW가 낮은 경우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WVT를 지지하는 것으로, BJW는 개인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중심 대처 전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유발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Lucas et al., 2013), 개인이 자신의 BJW와 불일치하는 경험(예. 성차별경험)을 하게 되면, BJW의 긍정적 영향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Quinn & Crocker, 1999). 특히, 본 연구에는 성차별을 많이 경험하거나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점화되었을 때, 높은 BJW를 가진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BJW를 가진 여성의 자아존중감

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BJW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상담 장면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자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할 시, 성차별경험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관, 가령, BJW에 대해 살펴보고, BJW가 높은 내담자의 경우 성차별경험과 BJW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예. 심리적 충격, 혼란,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BJW가 높은 내담자를 상담할 시, 인지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 과도한 기대(예. “사람들은 항상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나는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적 기법을 통해 편견, 특권, 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Ziegler 2003). 이와 반대로, BJW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낮은 BJW가 더 강화될 가능성, 즉, 세상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정감과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김은하, 정보현, 2018).

또한 본 연구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심리학과 성차별예방 정책에 시사점을 가지는데, 가령,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이 개인 내적요인만이 아닌 성차별경험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개입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성차별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20대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장벽(예. 성차별)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밝혀진 BJW의 조절효과는 여성심리학과 성차별 관련 연구에서 BJW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적은 샘플수로 인하여 참여자의 인적 사항, 특히 교육수준, 혹은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성차별경험, BJW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있어 외생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준과 직업을 가진 대규모 여성을 표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과 비성차별 점화과제만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과제와 더불어 자신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흑인, 다문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화 과제를 실시하여, 자신과 관련된 차별과 자신과 관련되지 않는 차별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화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전 측정, 점화, 사후 측정을 포함한 모든 실험에 소요된 시간이 30분 정도였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점화 효과는 최대 10~15분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일 점화가 아닌 반복적인 개입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사후에만 측정하여 점화로 인해 자존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보면, 집단이 자존감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사전 사후에 측정하여 점화 과제로 인해 얼마나 자존감이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BJW를 조절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상관분석 결과 BJW가 성차별경험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는 BJW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BJW의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를 비교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BJW가 조절 혹은 매개 효과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BJW의 역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최근에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Taifel, 1982)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인자아존중감만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을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아존중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Cassidy et

al., 2004; Fischer & Holz, 2007)가 있는 반면 차별경험이 집단자아존중감에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Bourhis, Sachdev & Gagnon, 1994; Morten & Atkinson, 1983). 하지만 집단자아존중감이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이라는 점(유두련, 2014; Pedersen et al., 2013), 그리고 집단자아존중감이 여성, 성소수자, 유색인종(예. 흑인, 남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Detrie & Lease, 2007; Katz, Joiner, & Kwon, 2002; Kim. & Omizo, 2005; Sanchez & Vilain, 2009), 후속 연구에서는 WVT가 집단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문 조사와 점화 방법을 통해 세계관입증이론(WVT)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WVT가 한국 여성의 성차별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BJW가 높을 때는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차별과 관련하여 WVT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 BJW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늘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개입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예.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장애인)들의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WVT가 적용되는지 대한 연구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경북일보 (2018. 01. 03). 국내 기업 80%, 인재 채용때 성차별.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3786>.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5), 1-15.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안상수, 김금미 (2010). 성별 관련 조직 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85-309.
- 유두련 (2014).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에 따른 친환경적태도와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5(3), 183-206.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3), 443-452.
- 통계청 (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5). 2015 일가정양립지표.
- Banks, K. H., Kohn-Wood, L. P., & Spencer, M. (2006). An examination of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of everyday discrimination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6), 555-570.
- Bourhis, R. Y., Sachdev, I., & Gagnon, A. (1994). Intergroup research with the Tajfel matrices: Methodological notes. In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 (Vol. 7, pp. 209-232)*. Hillsdale, NJ: Erlbaum.
- Burke, R. J., & Mikkelsen, A. (2005). Gender issues in policing: do they matter?. *Women in Management Review*, 20(2), 133-143.
- Cassidy, C., O'Connor, R. C., Howe, C.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29-339.
- Correia, I., & Dalbert, C. (2008). School bullying: Belief in a personal just world of bullies, victims, and defenders. *European Psychologist*, 13(4), 248-254.
- Cozzarelli, C., Wilkinson, A. V., & Tagler, M. J. (2001). Attitudes toward the poor and attributions for pover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207-227.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03-513.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Kluwer Academic.
- Detrie, P. M. & Lease, S. H. (2007).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connectedness, and collective self-esteem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Homosexuality*, 53(4), 173-199.
- Finkel, E. J., Campbell, W. K., Brunell, A. B., Dalton, A. N., Scarbeck, S. J., & Cartrand, T. L. (2006). High-maintenance interaction: Inefficient social coordinat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3), 456-475.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Fischer, A. R., & Holz, K. B.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Hafter, C. L., & Olson, J. M. (1993). Beliefs in a just world, discontent, and assertive actions by working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30-38.
- Jost, J. T., & Hyunday, O. (2002). The psychology of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 111-153.
- Kaiser, C. R., Vick, S. B., & Major, B. (2004).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 world beliefs and the desire for revenge post-September 11, 2001. *Psychological Science*, 15, 503-506.
- Katz, J., Joiner, T. E., & Kwon, P. (2002). Membership in a devalued social group and emotional well-being: Developing a model of personal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and group socialization. *Sex Roles*, 47(9-10), 419-431.
- Kim, B. S. K., & Omizo, M. M. (2005).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12-419.
- Kim, E., & Park, H. (2018).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belief in a just world,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working wome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69, 143-150.
- Kira, I. A., Shuwiekh, H., Kucharska, J., Abu-Ras, W., & Bujold-Bugeaud, M. (2017). The dynamic underlying the negative mental health effect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wo samples:

- Poland and Egypt, *Current Psychology*, 1-15.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lonoff, E. A., Landrine, H., & Campbell, R. (2000). Sexist discrimination may account for well-known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93-99.
- Lambert, A. J., Burroughs, T., & Nguyen, T. (1999). Perceptions of risk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The role of just world beliefs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6), 643-656.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wis, J. A., & Neville, H. A. (2015).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89.
- Lucas, T., Kamble, S. V., Wu, M. S., Zhdanova, L., & Wendorf, C. A. (2016).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or self and others: Measurement invariance and links to life satisfaction in four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2), 234-248.
- Lucas, T., Lumley, M. A., Flack, J. M., Wegner, R., Pierce, J., & Goetz, S. (2016). A preliminary experimental examination of worldview verification, perceived racism, and stress reactivity in African Americans. *Health Psychology*, 35(4), 366-375.
- Lucas, T., Zhdanova, L., Wendorf, C. A., & Alexander, S. (2013).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Multilevel associ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325-1341.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jor, B., Gramzow, R., McCoy, S. K., Levin, S., Schmader, T., & Sidanius, J. (2002). Perceiving personal discrimination: The role of group status and status legitimizing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82-796.
- Major, B., Kaiser, C., & McCoy, S. K. (2003). It's not my fault: When and why attribution to prejudices protect self-esteem.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72-781.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68-1086.
- Major, B., Quinton, W. J., & McCoy, S.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251-330). New York: Academic Press.
- McCoy, S. K., & Major, B.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41-351.
- McCoy, S. K., Wellman, J. D., Cosley, B., Saslow, L., & Epel, E. (2013). Is the belief in meritocracy palliative for members of low status groups? Evidence for a benefit for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via perceive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307-318.
- Mendes, W. B., Blascovich, J., Hunter, S. B., Lickel, B., & Jost, J. T. (2007). Threatened by the unexpected: Physiological responses during social interactions with expectancy-violating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98-716.
- Morten, G., & Atkinson, D. R. (1983).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and preference for counselor race. *Journal of Negro Education*, 52(2), 156-161.
- Ocel, H., & Aydm, O., (2012). Workplace bullying and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13(3), 248-258.
- Panchanadeswaran, S., & Dawson, B. A. (2011). How discrimination and stress affects self-esteem among Dominican immigrant women: An exploratory study.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6(1), 60-77.
- Pedersen, E. R., Hsu, S. H., Neighbors, C., Paves, A. P., & Larimer, M. E. (2013).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facets of self-esteem and drinking behavior among diverse groups of youth adults. *Addictive Behavior*, 38(1), 2581-2585.
- Quinn, D. M., & Crocker, J. (1999). When ideology hurts: Effects of belief in the Protestant ethic and feeling overweigh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402-41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chez, F. J., & Vilain, E. (2009). Collective self-esteem as a coping resource for male-to-female transsexu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202-209.
- Tai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ownsend, S. S., Major, B., Sawyer, P. J., & Mendes, W. B. (2010). Can the absence of prejudice be more threatening than its presence? It depends on one's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6), 933-947.
- Warden, D., Cassidy, C., O'Connor, R., & Howe, C.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thnic minority young peo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29-339.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Zielger, D. J. (2003).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health in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1), 21-36.

1차원고접수 : 2018. 07. 15.

심사통과접수 : 2018. 09. 06.

최종원고접수 : 2018. 09. 21.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Based on 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Eunha Kim

Kyunghee Kim

Hansol Park

Bohyeon Jung

Ajou University

Based on the 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belief in a just world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WVT, greater belief in a just world increases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In study 1, we measure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belief in a just world, and self-esteem among 200 women (aged at least 20),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was significant. That is, as belief in a just world was greater,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increased. In study 2, using priming approach,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For this, 160 women (aged at least 20) randomly assigned to either gender non-discriminatory group or gender discriminatory group and completed priming tasks. Findings suggested that belief in a just world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group and self-esteem. Specifically,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BJW and self-esteem was smaller in gender discriminatory group, compared to non-discriminatory group.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worldview verification theory*